

# 기본소득의 사회 사상과 이론

이토 마코토 (伊藤誠)

번역: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BI) 구상은 자산심사 없이 모든 개별 사회 구성원에게 정부가 동등하게 제공하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개별 사회 구성원은 모두 각자의 경제 생활의 기초로서 이 소득에 의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다른 소득을 추가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서유럽에서 1980년 이래 학계의 관심을 끌었는데,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BIEN)와 1984년의 기본소득 연구 집단의 형성이 그 예이다.

이것은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비혼모와 독거 노인 등)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비정기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나타난 전통적인 복지국가 정책의 교착 상태를 반영한다. 이 아이디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으며, 소비에트 모델과는 다른 (사회민주주의를 경유한)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맑스주의 이론가들도 지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이 오자와 슈지(小沢修司, 2002년)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체제를 개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등장한 지 20년이 지난 후였다. 이는 곧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논문과 에세이가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지에 많이 실렸다. 몇몇 정당은 이 아이디어를 선거 강령에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의 기존 사회보장 체제에 대한 개혁이라는 틀 내에 머물러 있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주의의 기여는 대체로 무시되었다.

## 2. 기본소득의 두 흐름

나는 경제사상사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현재 논의의 배경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두 가지 사상 흐름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기본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한다. 이 흐름은 18세기 말의 토머스 페인(1795~1796년)에서 시작하여 20세기의 데니스 밀너, 제임스 미드 등등을 거쳐 사회보장 체제의 개혁으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최근의 제안까지 이어진다.

또 다른 흐름은 이런저런 종류의 사회주의 사회를 예상한다. 이 전통은 19세기 말 에드워드 벨라미가 쓴 미국의 유토피아 소설(1888년)에서 시작해서 오스카 랑에(1936~1937년)와 최근의 존 로머(1994년)의 시장 사회주의 모델로 이어진다.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필리프 판 파레이스 (1995년)가 말한 것처럼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완전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 사회주의 모델에서조차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작동과 시장 노동에 대한 유인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무임승차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임승차자를 낳을 가능성은 종종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유로 사용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시장 사회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모두에서 완전 기본소득이 될 수 없고, 부분 기본소득으로 머물러 있는 한 사회에 아무런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을 받는 무임승차자는 자기 삶에서 충분하지 못한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본소득 제도 하에서 무임승차자가 증가할 위험을 축소시킨다.

또한 그러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행정 비용을 들여 사생활을 감시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 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의 무임승차가 생길 가능성은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토니 피츠패트릭(1999년)이 인정했듯이 허용되는 게 더 낫다.

## 4. 가능한 규모와 자원

가능한 기본소득의 규모와 필요한 공적 자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본의 전체 인구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매달 8만 엔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오자와 슈지의 계획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총액인 115조 엔은 모든 근로소득에 대한 약 50퍼센트의 비례 기본소득세로 마련된다.

왜 과세 기반이 노동자 소득에만 한정되고 기업 소득은 배제하는가가 이론적으로 문제적이다.

기본소득의 기능 또한 조심스럽게 재고찰해야 한다. 고용 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결합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기업이 값싼 비정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육아, 교육, 의료, 노인 돌봄 등의 영역에서 공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기본소득 제도 자체를 위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마술적인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

## 5. 기본소득에 대한 맑스의 사상과 이론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소득 재분배의 사회 체제에 대한 어떤 생각도 제시한 바 없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성격과 한계를 밝히는 그의 기본 사상과 이론은 오늘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주의적 옹호를 뒷받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그의 상(像)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은 소비에트 사회 모델보다는 모든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성취한다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가깝다.

인간의 노동 과정의 역사적 존재가 시장 노동보다 더 넓은 것이라는 그의 인정은 가사 노동과 같은 비시장적 노동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기본소득 형태의 소득 재분배로 보상해야 하는 것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맑스의 노동 부족 유형의 과잉 축적 위기 이론이 완전 기본소득의 실현에 곤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동시에 기본소득에 대한 오늘날의 주장은 맑스의 사상과 이론의 몇몇 측면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유명한 고타 강령 비판(1875년)에서 맑스는 공산주의 사회의 발전에서 두 국면을 상정했다. 첫 번째 국면에서는 개별 생산자가 사회로부터 사회에 대한 각자의 노동 기여에 비례한 양의 소비 수단을 받는다. 그러므로 동등하지 않은 노동에 대한 동등하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노동과 분배의 이상적인 사회 관계인 "각자는 능력에 따라에서 각자는 필요에 따라"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더 높은 국면인 두 번째 국면에서이다. 이때 생산력은 증가하여 협력적인 부의 플로우가 더 풍요로워지게 된다.

이 정식의 관점에서 많은 맑스주의 학자들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매우 먼 미래의 사회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가정했었다. 하지만 현대의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사회보장 체제 혹은 기본소득과 같은 개혁 프로그램의 형태로 최소한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평등주의적 소득 재분배를 제안한다고 할 때 맑스의 복잡 노동 이론에 대한 재고찰을 필요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주의에 관한 정식화에서 맑스는 복잡 노동이 단순 노동과 비교할 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한다고 가정했다.

노동 과정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인간의 공통적이고 광범위한 정신 능력에 대한 맑스 자신의 기본적인 견해를 다시 생각해볼 때 노동 시간은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서 동질적이고 통약가능하다고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동안 [수행되는] 복잡 노동과 단순 노동 (혹은 시장 노동과 비시장 노동)을 동등하지 않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숙련 노동력 혹은 복잡 노동력이라는 쟁점과 분리할 수 있다. 이 쟁점은 시장 경제에서 복잡 노동력의 훈련 비용과 교육비를 포함해야 한다. 숙련 노동 혹은 복잡 노동에 대한 맑스의 이론이 이러한 인식에 맞게 수정된다면, 노동 가치이론 내에서 오랫동안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기본소득 제도의 평등주의적 정신에 부합하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伊藤誠 (2011), 「ベーシック인카ムの思想と理論」, 『日本学士院紀要』, 第 65卷2号。

小沢修司(2002), 『福祉社会と社会保障改革—ベーシック・인カム構想の新地平—』, 高菅出版。

Bellamy, Edward (1888), *Looking Backward 2000-1887*.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Palgrave.

Lange, O. (1936-37),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in: *Review of Economic Studies*.

Paine, T. (1795-96), *Agrarian Justice*.

Van Parijs, P. (1995), *Real Freedom for All*.

Roemer, J. (1994), *A Future of Socialism*.